

종합

“새천년대교 3만t급 이상 통과해야”

5천t 통과 규모 설계땀 목포대교와 높이 안맞아 통행 안돼

목포항 도선사회 설계변경 요청

신안군 압해도와 압태도를 잇게 될 ‘새천년대교’가 3만t급 이상의 대형 선박의 통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근에 새로 건설중인 목포대교(목포~고하도)가 3만t급 이상의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록 설계됨에 따라 목포항 진출입 대형 선박들의 통항을 위해서는 새천년대교의 설계가 반드시 3만t급 이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항 도선사회는 최근 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에 신안군 압해~

압태를 연결하게 될 새천년대교의 시설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새천년대교를 3만t급 선박도 통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천년대교의 높이가 기존 27m에서 40m로 높아졌지만, 목포 내항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3만t급 선박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제1공구 복합사자교의 높이가 목포대교와 동일하게 53m 이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청은 최근 새천년대교 건설이

대형 선박의 통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천t급 선박 통항이 가능하도록 교량 높이를 기존 27m에서 40m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새천년대교의 경우 목포 내항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3만t급 이상의 대형 선박의 통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량 높이의 설계변경 없이 목포대교가 사실상 쓸모 없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새천년대교 건설이 현재 계획대로 설계돼 추진될 경우 목포에서 중곡을 운항하는 대형 선박의 우회와 다른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목포해양대교

수와 직원들도 “새천년대교가 건설될 ‘면도수로’는 서해안과 중국~목포항을 단거리로 연결하는 곳으로,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의 해상교통 상황만을 고려해 3천t급 통항 계준으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3천t급 이상은 단거리 항로 대신 외해(外海)로 빙 돌아서 통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천년대교는 지난해 9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ilee@

운천·남광주·효천·광주역

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 설치

남광주역 복합역사 검토

광주도시철도 2호선(총 노선 길이 42.5km)에 정거장 45개소, 운천, 남광주, 광주, 효천역 등 환승역 4곳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기준 마련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역사 계획을 발표, 역사 신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거장과 환승역을 승객 동선의 단순화, 승객의 안전성, 대중교통 연계성을 고려해 운천역, 남광주역, 광주역, 효천역 등 4곳에 환승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역세권 조성을 위해 남광주역사를 상업·업무 시설이 들어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 및 환승역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역사 조성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역간 거리는 0.5km~1.5km로 설정했다. 또 전체노선에 정거장 4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2호선이 지상고가 경전철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도로 폭이 35m 이상일 경우 신호,통신,기계설 등 기능실을 지하화하는 등 정거장 구조물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철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2.51km 구간으로 확정하고, 전 구간을 지상 고가 경량전철로 건설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초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후 2011년 착공, 2024년 완공할 계획이며 총 1조9천6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대 강력법 ‘전자발찌’ 최장 30년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

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한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남뉴스



“쌀대란 대책세워라” 전남 광주전남 연맹 회원들이 22일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쌀대란 해결,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섬마을 생필품값 30% 낮춘다

전남도-전남농협 협약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가 외딴 섬마을에 물류비 지원을 통해 생활필수품 가격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섬주민 생활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그동안 도선료 등을 이유로 과도한 물류비를 계산해 육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돼 오던 섬 지역 생활품을 농협 유통망을 활용하고 도와 시·군이 유통비용을 부담해 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수·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읍·면 소재지에서 떨어진 165개 외딴 섬마을에 1만 가구 2만 명을 대상으로 물류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쌀, 밀가루, 라면은 비롯한 섬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13개 품목에 대해 농협 입점 가격(도매가)에 외딴섬의 소매점에 공급하고 섬 지역 소매점은 적정이익을 붙여 육지 판매가와 차이 없이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신안 지역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3만2천 원이던 라면(40개) 가격이 2만2천 원으로, 밀가루(3kg)가 6천 원에서 4천100원 등으로 30% 이상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대통령이 할 일을 드리는 겁니다

‘엔젤계수’ 8년來 최고

올 식료품값 급등 영향... 술·담배 지출 11년만에 ↓

올들어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엔젤계수가 빠르게 상승해 8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엔젤계수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엔젤이 발명한 방식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주류·담배의 지출액은 11년만에

처음으로 줄었고 교육비 지출액도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계의 명목 국내 소비지출액은 408조8천22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99조932억원보다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49조1천461억원에서 53조38억원으로 7.8% 증가했다.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3%보다 0.7%포인트 급상승했다. 올해 이 비중은 지난 2001년(1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9월중 주류·담배에 대한 가계의 명목 지출액은 10조4천9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조6천637억원보다 1.6% 줄었다. 주류·담배 명목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환란 당시인 지난 1998년(-3.0%) 이후 처음이다. 올들어 9월까지 명목 교육비 지출액은 30조6천35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원보다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증가율은 1998년(-3.2%) 이후 최저다. /연남뉴스

경찰관 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 5개 추가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5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 통과했다”

고 22일 밝혔다.

순경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각종 특채 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157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경찰업무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사고분석사 등 5개로, 이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급수별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연남뉴스

산행안내 14면

광고접수안내

QUIZ 영회관출근소 드립니다

무등빌딩임대

다산공인중개사

대운공인중개사

가은공인중개사

(서울) 퍼스트부동산

9급 공무원